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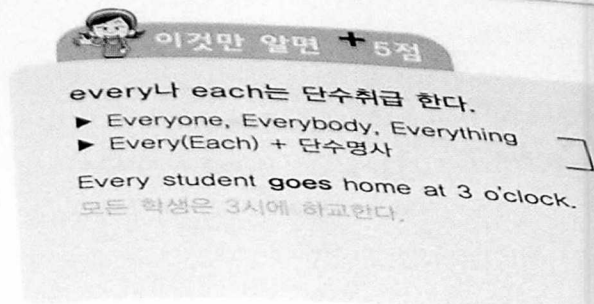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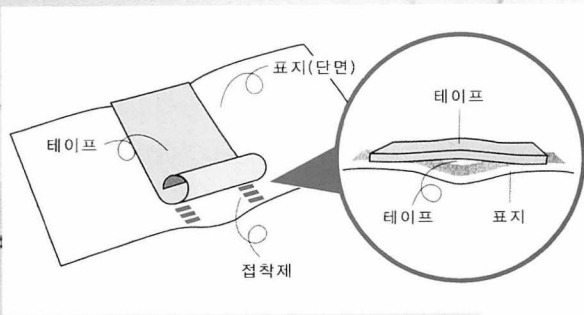
두꺼운 책을 제책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양장제책과 무선제책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양장제책은 표지를 두꺼운 하드커버로 만들어 붙인 책으로 본문을 실로 엮어 묶은 다음, 책등에 영성한 거즈와 같은 생사를 바른 후 그 위에 질긴 종이를 덧붙인다. 즉, 본문과 표지를 따로 제작, 재단한 다음 면지를 이용해서 붙이는 방법으로 고급스럽고 내구성이 뛰어나 백과사전, 연감 등의 보관용 장서 제작에 널리 쓰인다. 접착제를 쓰지 않고 실을 꿰어 만들었기 때문에 책을 펼쳐 보기가 쉽다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바로 비싼 제작 단가이다.

이러한 양장제책을 대신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

이 바로 무선제책이다. 본문을 실로 엮는 대신 책등에 접착제를 묻히는 무선제책은 제작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각종 취급설명서, 가이드북, 소설, 참고서 등에 널리 쓰인다. 그러나 무선제책 역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접착제를 사용하는 특성상 본문의 반발력으로 인해 책이 완전히 펼쳐지지 않는다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오랫동안 반복해서 볼 경우 책 등에 줄이 생겨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 그러나 최근 양장제책과 무선제책의 장점만을 결합한 새로운 제책 시스템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양장제책의 고급스러움과 쉽게 펼쳐 볼 수 있는 편리성, 무선제책의 저렴한 제작비용을 살린 광개본이 바로 그것이다.

본문 완전 펼침으로 가독성 한 층 높여



특수 가공으로 본문과 표지를 분리

‘KEEP FLAT BOOK’ 이라고도 불리는 광개본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제책 방식이지만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광개본은 무선철 제책 양식 중에서 특히 좌우 펼침을 필요로 하는 책을 양장제책의 ‘할로우 백(HOLLOW BACK)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좌우 페이지에 연결 인쇄된 양면의 사진이 잘 보이고, 한 손으로도 펼치기 쉽다. 복사하기에도 편리한 장점이 있다.

광개본의 원리는 간단하다. 제책공정에 있어서 본문을 표지로 쌀 때에 표지가 본문과 붙지 않고 틈이 생기도록 미리 가공을 한 뒤 그 다음엔 일반 무선제책 라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본문을 부착하면 된다. 이때 접착제를 책등의 양쪽 모서리에서 약 8mm 정도 외측에 도포한 뒤, 표지의 사이즈에 맞게 자른 특수 테이프를 정확하게 붙여 맞추는 형식으로 제책 작업을 실시한다. 표지 가공을 위해서는 광개본 전용 유연성 접착제와 표지가 공을 위한 별도의 전용 장비가 있어야 하다. 각각의 조건에 맞춰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노하우도 필요하다. 이렇게 광개본으로 만들어진 책은 무엇보다 본문이 펼쳐지는 이른바 ‘광개도’가 우수해 두꺼운 책일수록 그 효과가 두드러진다.

15mm 이상의 두께에서 효과적

광개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책의 사이즈에 있어 전문가들은 A5판(국판) 이상, 가능하다면 B5판(4×6배판)을 추천한다. 태광문화사의 안광영 대표는 “B5판보다 작은 책에서는 앞치수가 짧아 광개도를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책의 두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얇으면 책의 등을 형성하는 표지와 본문의 공동부분(떠있는 부분)의 폭이 좁아 광개도가 저하되기 때문이다. 실제 제책에 있어서는 8mm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관계자들은

차한잔

태광문화사 안광영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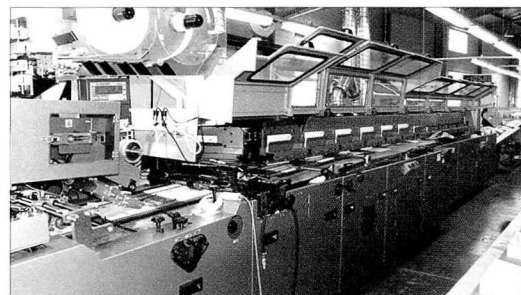
“호응 좋아 물량 확대될 것”

광개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날이 갈수록 업체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언가 차별화된 생산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유럽과 일본에서 이미 광개본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 아직 국내에 이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가 없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부담은 없었다.

지난 2006년 11월에 삼화양행으로부터 광개본이 가능한 요시노 무선철(27+26)라인을 도입하고 학습서에 처음 적용,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광개본 전문 무선제책 시스템을 갖춘 곳은 국내에서 우리가 최초일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담은 거의 없다. 일반 무선제책도 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기존 무선제책 물량을 소화하면서 거래처에서 원할 경우 새롭게 광개본 표지를 추가해줄기만 하면 된다. 현재 전체 물량의 약 5% 정도를 광개본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출판사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면 그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본다.



가급적 15mm 이상의 두께를 권한다.

본문과 표지 용지의 선정 또한 중요한 요소다. 일반적으로 본문용지는 상질지 4×6배판 55~70g이, 표지용지는 상질지 4×6배판 220g 짜리가 바람직하다.

광개본 표지 가공 업체인 수성테크의 최유석 상무는 “본문용지의 경우 종이의 탄성이 약한 것이 좋으며, 탄성이 강하고 두꺼운 코트지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반면 표지는 용지가 얇으면 책을 펼 때의 광개도는 좋더라도 책등의 떠있는 부분이 책을 지탱하지 못하고 꺾여 접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능성 앞세워 시장 확대될 듯

이미 일본에서는 참고서·지도책·사진집·게임 공략책·요리책·화보 등에 수요가 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 매뉴얼의 수요 비율이 높다. 무선철 제책기 메이커인 일본 요시노 머시너리사가 1997년 IGAS 전시회때 처음으로 온라인 장치를 공개 발표한 뒤 1998년에 온라인 장치 개발에 성공, 실용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연간 약 2천만부 정도가 광개본으로 생산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제책업계에서 광개본을 할 수 있는 곳은 불과 2~3곳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업계관계자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아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이다. 별도의 표지가공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일반 무선제책에 비해 단가가 조금 비싼 측면도 있다. 기존 PUR 제책방식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광개본 방식은 앞으로 양장제책과 무선제책의 장점을 결합한 특성을 앞세워 점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광영 태광문화사 대표는 “지금까지는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디자인 등 미적인 요소가 강조되었지만 앞으로는 독자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적인 요소가 점차 부각될 것”이라며 “출판사들을 상대로 활발한 영업을 전개해 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

차한잔

수성테크 최유석 상무



“틈새공략으로 충분히 승산”

보유장비는.

야마다기계에서 만든 광개본 전용 표지 가공기를 2006년 11월에 도입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말 그대로 표지 가공만을 처리하는 전용 장비다. 하루 5만장 정도의 표지 가공이 가능하다. 제책업체 입장에서 10억원이 넘는 장비를 새로 도입하기란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니다. 우리는 그런 제책회사들을 위한 표지 가공 공정만을 대신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국내에 광개본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데 앞으로의 과제는.

광개본 방식이 국내 소개된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만큼 시장 형성이 아직 미미하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남보다 빨리 진입할수록 유리하다는 의미도 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광개본 분야는 급속한 성장을 이룬다기 보다는 특화된 하나의 틈새시장을 구축할 것으로 본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가격이다. 일반 무선제책처럼 페이지 수에 따라 제작 단가를 책정하고 다시 권당 추가비용(30~40원)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작업을 의뢰해 오는 출판사들을 보면 표지에 장식용으로 두르는 띠를 없애는 대신 그 제작비를 제책에 투자하는 등 점차 기능성을 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